

KLSI

ISSUE PAPER

제 113 호
2019-12호
(2019.07.23.)

www.klsi.org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 -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2019년 3월 현재) -

김유선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박관성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원

[목차]

1. 전체
2. 남녀
3. 규모
4. 산업
5. 시도
6. 기업의 비정규직 사용 비율
7. 재벌기업
8. 1만 명 이상 거대기업
9. 함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50(충정로3가, 골든브릿지빌딩) 3층

전화 02) 393-1457

팩스 02) 393-4449

WWW.facebook.com/ksiedit

<요약>

노동부 고용형태 공시제(2019년 3월)를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형태 공시제 시행 첫 해인 2014년에 162만 명(37.3%)이던 비정규직이 2017년에는 192만 명(40.3%)으로 30만 명(3.0%p) 증가했다. 하지만 2018년에는 194만 명(49.8%)으로 수는 증가하고 비율은 감소했고, 2019년에는 187만 명(38.5%)으로 수와 비율 모두 감소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감소세는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둘째, 10대 재벌 비정규직은 2018년 48만 명(37.2%)에서 2019년 52만 명(38.0%)으로 1년 사이 4만 명(0.8%p) 증가했다.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10만 명(7.9%)에서 11만 명(8.2%)으로 1만 명(0.3%p) 증가했고,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38만 명(29.3%)에서 41만 명(29.8%)으로 3만 명(0.5%p) 증가했다. GS(60.9%), 롯데(55.9%), 포스코(53.1%), 현대중공업(51.4%)은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고, LG(16.7%)는 10대 재벌 중 비정규직을 가장 적게 사용하고 있다.

셋째,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은 187만 명(38.5%)이고,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99만 명(20.3%),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88만 명(18.1%)이다. 10대 재벌 비정규직은 직접고용이 52만 명(8.2%), 간접고용이 41만 명(29.8%)이다. 재벌계열 거대기업일수록 사내하청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들 대기업 사내하청은 대부분 상시·지속적 일자리이자 불법파견이다. 정부는 불법파견 단속을 강화해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넷째, 고용형태 공시제 대상 기업을 산업대분류 기준으로 나눠 살펴보면, 제조업이 920개(26.6%)로 가장 많고, 사업시설관리서비스업이 663개(19.2%)로 두 번째로 많다. 노동자수를 보더라도 제조업이 152만 명(31.4%)으로 가장 많고, 사업시설관리서비스업이 69만 명(14.1%)으로 두 번째로 많다. 이것은 지난 20년 동안 무분별한 아웃소싱으로 인력파견 용역사업이 번창했음을 말해준다.

다섯째,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 300인 이상 500인 미만 기업은 비정규직 비율이 26.1%인데, 1천인 이상 기업은 40%가 넘는다. 5천인 이상 1만인 미만 기업이 45.3%로 가장 높고, 1만인 이상 기업은 41.5%다. 거대기업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온상이자 주범이다.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

-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2019년 3월 현재) -

김유선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박관성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원

1. 전체

고용형태 공시제 대상 기업은 2014년 3월 2,942개소에서 2019년 3월 3,454개소로 512개 증가했고, 이들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같은 기간 436만 명에서 486만 명으로 50만 명 증가했다.

정규직은 2014년 274만 명에서 2019년 299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한데 비해, 비정규직은 2014년 162만 명에서 2018년 194만 명으로 증가하다가 2019년 187만 명으로 감소했다. 기간제 등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2014년 75만 명에서 2018년 103만 명으로 증가하다가 2019년 99만 명으로 감소했고,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같은 기간 87만 명에서 91만 명으로 증가하다가 88만 명으로 감소했다. 기간제는 2018년 93만 명을 정점으로 2019년 89만 명으로 감소한데 비해, 단시간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비정규직 비율은 2014년 37.3%에서 2017년 40.3%로 계속 증가하다가 2018년 39.8%, 2019년 38.5%로 감소했다.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2014년 17.2%에서 2017년 21.3%로 계속 증가하다가 2018년 21.1%, 2019년 20.3%로 감소했고,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2014~2015년 20.0%를 정점으로 2019년 18.1%까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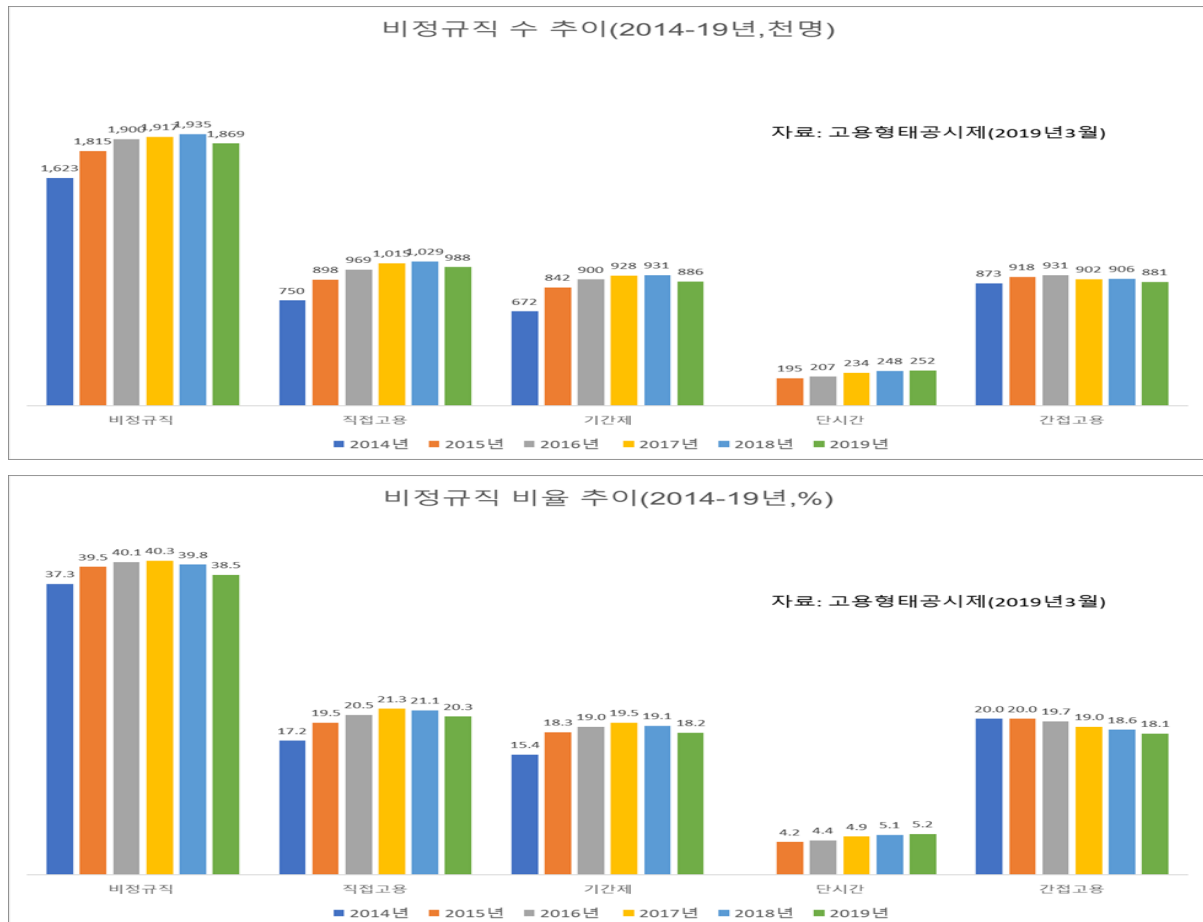
비정규직 수는 2018년, 비정규직 비율은 2017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그 규모는 아직까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표 1] 연도별 비정규직 규모

	연도	기업수 (개)	노동자 (천 명)	비정규직 수(천 명)					비정규직 비율(%)				
				전체	직접고용			간접 고용	전체	직접고용			간접고 용
					소계	기간제	단시간			소계	기간제	단시간	
규 모	2014년	2,942	4,358	1,623	750	672		873	37.3	17.2	15.4		20.0
	2015년	3,233	4,593	1,815	898	842	195	918	39.5	19.5	18.3	4.2	20.0
	2016년	3,464	4,737	1,900	969	900	207	931	40.1	20.5	19.0	4.4	19.7
	2017년	3,418	4,755	1,917	1,015	928	234	902	40.3	21.3	19.5	4.9	19.0
	2018년	3,475	4,865	1,935	1,029	931	248	906	39.8	21.1	19.1	5.1	18.6
	2019년	3,454	4,859	1,869	988	886	252	881	38.5	20.3	18.2	5.2	18.1
조 감	2014~2015년	291	235	192	148	170		45	2.2	2.3	2.9		0.0
	2015~16년	231	144	85	71	58	12	13	0.6	1.0	0.7	0.1	-0.3
	2016~17년	-46	18	17	46	28	27	-29	0.2	0.8	0.5	0.6	-0.7
	2017~18년	60	110	18	14	3	14	4	-0.5	-0.2	-0.4	0.2	-0.4
	2018~19년	-21	-6	-66	-41	-45	4	-25	-1.3	-0.8	-0.9	0.1	-0.5

자료: 노동부,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 각년도

[그림 1] 연도별 비정규직 수 및 비율



2. 남녀

고용형태 공시제 기업에서 일하는 남성 313만 명 가운데 정규직은 198만 명(63.3%)이고 비정규직은 115만 명(36.7%)이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63만 명(20.0%)으로, 직접고용 비정규직 52만 명(16.7%)보다 많다.

여성 노동자 173만 명 가운데 정규직은 101만 명(58.5%)이고 비정규직은 72만 명(41.5%)이다.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47만 명(26.8%)으로, 간접고용 비정규직 26만 명(14.7%)보다 많다.

[표 2] 성별 비정규직 규모(2019년 3월 현재)

성	노동자 (천 명)	비정규직 수(천 명)					비정규직 비율(%)				
		전체	직접고용			간접 고용	전체	직접고용			간접 고용
			소계	기간제	단시간			소계	기간제	단시간	
남자	3,126	1,148	523	501	85	625	36.7	16.7	16.0	2.7	20.0
여자	1,733	720	465	385	167	255	41.5	26.8	22.2	9.6	14.7
전체	4,859	1,869	988	886	252	881	38.5	20.3	18.2	5.2	18.1

3. 규모

노동부가 집계한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에는 300인 미만 기업(209개소 5만 명)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300인 이상 기업으로 대상을 한정하면 기업규모가 클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 300인 이상 500인 미만 기업에서는 26.1%인데, 5천인 이상 1만인 미만 기업에서는 45.3%다. 1만인 이상 거대기업에서 비정규직 비율은 41.5%로 조금 떨어진다. 300인 이상 5천인 미만 기업에서는 직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이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보다 높지만, 5천인 이상 기업에서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이 직접고용 비정규직 비율보다 높다. 직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은 500인 이상 1천인 미만 기업을 정점으로 하는 역U자를 그리는데 비해,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은 기업규모가 클수록 높다.

[표 3] 기업규모별 비정규직 규모(2019년 3월 현재)

기업 규모 (전체노동자기준)	기업수	노동자 (천 명)	비정규직 수(천 명)					비정규직 비율(%)				
			전체	직접고용			간접 고용	전체	직접고용			간접 고용
				소계	기간제	단시간			소계	기간제	단시간	
300인 미만	209	46	17	16	15	2	1	36.9	34.7	31.7	4.6	2.2
300-499인	1,163	458	120	102	95	19	18	26.1	22.3	20.8	4.1	3.9
500-999인	1,137	794	261	202	193	34	59	32.8	25.4	24.3	4.3	7.4
1000-4999인	796	1,555	616	385	368	73	231	39.6	24.7	23.7	4.7	14.9
5000-9999인	88	604	274	133	114	51	141	45.3	22.0	18.9	8.5	23.3
1만 인 이상	61	1,402	582	150	102	73	431	41.5	10.7	7.2	5.2	30.8
전규모	3,454	4,859	1,869	988	886	252	881	38.5	20.3	18.2	5.2	18.1
300인 이상	3,245	4,813	1,852	972	871	250	880	38.5	20.2	18.1	5.2	18.3

연도별 기업규모별 비정규직 비율 추이를 살펴보면, 1만인 이상 기업은 2017년 42.5%에서 2019년 41.5%로 1.0%p 낮아진데 비해, 5천인 이상 1만인 미만 기업은 40.7%에서 45.3%로 4.6%p 높아졌다. 300인 이상 5천인 미만 기업에서 비정규직 비율은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

[표 4] 기업규모별 비정규직 수와 비율 변화(2014-19년)

기업 규모 (전체 노동자 기준)	비정규직 수(천 명)						비정규직 비율(%)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300인 미만	98	20	25	15	13	17	41.7	41.7	42.2	35.3	37.5	36.9
300-499인	1,022	122	131	129	132	120	26.8	29.7	29.5	29.2	28.2	26.1
500-999인	1,003	275	301	303	294	261	34.4	36.5	38.0	38.2	36.1	32.8
1000-4999인	680	593	598	640	638	616	38.4	41.8	42.0	42.7	41.9	39.6
5000-9999인	82	210	359	250	271	274	37.4	39.2	41.3	40.7	43.4	45.3
1만 인 이상	57	596	813	580	587	582	40.5	41.7	42.2	42.5	41.9	41.5
전규모	2,942	1,815	2,836	1,917	1,935	1,869	37.3	39.5	40.1	40.3	39.8	38.5
300인 이상	2,844	1,796	2,802	1,902	1,922	1,852	37.2	39.5	40.1	40.4	39.8	38.5

4. 산업

고용형태 공시제 대상 기업을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이 920개(26.6%)로 가장 많고, 사업시설관리서비스업이 663개(19.2%)로 두 번째로 많다. 노동자수를 보더라도 제조업이 152만 명(31.4%)으로 가장 많고, 사업시설관리서비스업이 69만 명(14.1%)으로 두 번째로 많다. 이것은 그만큼 인력과건 용역사업이 번창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비정규직 비율은 건설업(79.0%), 부동산업(68.0%), 숙박음식점업(61.8%),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52.4%), 교육서비스업(47.2%)이 높고, 전기가스수도사업(14.0%), 수도하수폐기물처리(19.0%), 출판영상정보서비스업(21.4%), 제조업(24.0%)은 낮은 편에 속한다.

직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은 부동산업(59.5%), 사업시설사업지원서비스업(47.2%), 숙박음식점업(45.4%), 교육서비스업(38.3%)이 높고,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은 건설업(49.4%), 운수업(21.5%), 제조업(20.6%), 광업(20.3%)이 높다.

[표 5] 산업별 비정규직 규모(2019년 3월 현재)

산업대분류	기업수	노동자 (천 명)	비정규직 수(천 명)					비정규직 비율(%)				
			전체	직접고용			간접 고용	전체	직접고용			간접 고용
				소계	기간제	단시간			소계	기간제	단시간	
농업,임업및어업	2	1	0	0	0	0	0	36.7	32.2	26.4	14.4	4.5
광업	1	1	0	0	0	-	0	24.9	4.7	4.7	-	20.3
제조업	920	1,523	366	52	49	6	313	24.0	3.4	3.2	0.4	20.6
전기,가스,증기	14	8	1	0	0	0	1	14.0	4.8	4.7	0.1	9.2
수도,하수폐기물	11	9	2	2	2	0	0	19.0	17.6	17.2	1.8	1.5
건설업	233	459	363	136	135	9	227	79.0	29.6	29.4	1.9	49.4
(생산자서비스업)	1,089	1,268	567	436	422	47	131	44.7	34.4	33.3	3.7	10.3
금융보험업	159	325	92	31	29	7	62	28.5	9.4	8.9	2.2	19.0
부동산업	95	101	69	60	59	5	9	68.0	59.5	58.8	4.9	8.5
전문과학기술	172	157	46	22	21	2	25	29.5	13.8	13.3	1.6	15.7
사업시설관리	663	685	359	323	313	33	36	52.4	47.2	45.6	4.8	5.2
(유통서비스업)	614	883	271	133	87	67	138	30.7	15.0	9.8	7.6	15.7
도매소매업	236	392	145	77	45	46	68	37.0	19.6	11.5	11.7	17.4
운수업	189	228	70	21	20	2	49	30.5	9.0	8.6	0.7	21.5
출판영상정보	189	263	56	35	22	19	21	21.4	13.5	8.3	7.4	8.0
(개인서비스업)	155	248	127	94	65	65	32	51.0	38.0	26.3	26.3	13.0
숙박음식점업	78	175	108	79	51	62	29	61.8	45.4	29.1	35.3	16.4
예술스포츠여가	24	14	3	2	2	1	1	24.2	17.3	16.9	3.9	6.9
협회단체수리	53	60	15	13	12	3	3	25.7	21.1	20.1	5.5	4.6
(사회서비스업)	415	458	172	134	126	58	38	37.5	29.3	27.4	12.6	8.2
공공행정국방	8	23	8	5	5	1	3	34.1	21.0	21.0	3.3	13.0
교육 서비스업	132	209	99	80	75	37	19	47.2	38.3	35.8	17.7	9.0
보건사회복지	275	227	65	49	46	20	16	28.9	21.8	20.4	8.8	7.0
전산업	3,454	4,859	1,869	988	886	252	881	37.3	39.5	40.1	40.3	39.8

제조업 업종별 비정규직 비율은 조선(62.3%), 철강금속(44.0%), 음식료(25.6%), 화학물질(24.0%), 섬유 의복 가죽(24.0%), 전기장비(21.1%), 기타(19.8%), 전자부품컴퓨터통신(17.7%), 자동차트레일러(15.3%), 기계장비(11.4%) 순이다. 제조업은 모든 업종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이 직접고용 비정규직 비율보다 높는데, 특히 조선(60.7%)과 철강금속(42.0%)에서 높다.

지난 1년 사이 자동차 산업 노동자는 25만7천 명에서 24만9천 명으로 8천 명 감소했다. 정규직은 21만6천 명에서 21만1천 명으로 5천 명 감소했고, 비정규직은 4만1천 명에서 3만8천 명으로 3천 명 감소했다. 그 결과 비정규직 비율은 16.0%에서 15.3%로 0.7%p 감소했고, 사내하청 비율도 13.6%에서 12.4%로 1.2%p 감소했다.

조선 산업 노동자는 12만 4천 명에서 12만 2천 명으로 2천 명 감소했다. 정규직은 5만 1천 명에서 4만 6천 명으로 5천 명 감소했고, 비정규직은 7만 3천 명에서 7만 6천 명으로 3천 명 증가했다. 그 결과 비정규직 비율은 58.9%에서 62.3%로 3.4%p 증가했고, 사내하청 비율도 56.5%에서 60.7%로 4.2%p 증가했다.

[표 6] 제조업 업종별 비정규직 규모(2019년 3월, 중분류 기준)

산업(제조업 업종)	노동자수 (천 명)	비정규직 수(천 명)					비정규직 비율(%)				
		전체	직접고용			간접 고용	전체	직접고용			간접 고용
			소계	기간제	단시간			소계	기간제	단시간	
음식료	125	32	9	8	2	23	25.6	7.2	6.4	1.6	18.4
섬유의복가죽	25	6	2	1	1	4	24.0	8.0	4.0	4.0	16.0
화학물질	125	30	4	4		26	24.0	3.2	3.2		20.8
철강금속	100	44	2	2		42	44.0	2.0	2.0		42.0
전자부품컴퓨터통신	402	71	8	7	1	63	17.7	2.0	1.7	0.2	15.7
전기장비	57	12	4	4		8	21.1	7.0	7.0		14.0
기계 및 장비	70	8	2	2		6	11.4	2.9	2.9		8.6
자동차 트레일러	249	38	7	7		31	15.3	2.8	2.8		12.4
조선	122	76	2	2		74	62.3	1.6	1.6		60.7
기타	248	49	12	11	1	37	19.8	4.8	4.4	0.4	14.9
제조업	1,523	366	53	49	6	313	24.0	3.5	3.2	0.4	20.6
비제조업	3,336	1,502	935	837	246	567	45.0	28.0	25.1	7.4	17.0
전산업	4,859	1,869	988	886	252	881	38.5	20.3	18.2	5.2	18.1

5. 시도

고용형태 공시제 대상 기업을 광역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1,660개(48.1%)로 가장 많고, 경기도가 641개(18.6%)로 두 번째로 많다. 노동자수를 보면 서울이 285만 명(58.7%)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가 84만 명(17.3%)으로 두 번째로 많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2,437개(70.6%)고, 노동자가 385만 명(79.2%)이다. 이것은 그만큼 서울 등 수도권에 대기업 본사가 몰려 있음을 말해준다.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곳은 전남(59.8%), 울산(48.8%), 부산(42.9%), 서울(41.3%) 순이고, 비정규직 비율이 낮은 곳은 제주(24.4%), 충남(24.9%), 충북(25.3%), 세종(25.5%) 순이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은 전남(42.5%)과 울산(33.8%)이 가장 높고, 직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은 대구(30.7%)와 부산(30.2%)이 가장 높다.

[표 7] 시도별 비정규직 규모(2019년 3월 현재)

시도	기업수 (개)	노동자 (천 명)	비정규직 수(천 명)					비정규직 비율(%)				
			전체	직접고용			간접 고용	전체	직접고용			간접 고용
				소계	기간제	단시간			소계	기간제	단시간	
서울	1,660	2,852	1,179	645	559	182	534	41.3	22.6	19.6	6.4	18.7
부산	188	153	66	46	43	12	19	42.9	30.2	28.4	7.9	12.7
대구	98	90	35	28	27	7	7	38.4	30.7	29.8	7.7	7.7
인천	136	154	55	25	23	5	30	35.7	16.4	14.8	3.5	19.3
광주	58	59	21	16	15	2	5	35.3	26.5	26.4	3.8	8.7
대전	66	79	29	18	16	4	12	37.1	22.3	20.3	5.4	14.8
울산	46	77	38	12	12	0	26	48.8	15.0	15.0	0.5	33.8
세종	12	11	3	0	0	0	3	25.5	1.4	1.4	0.0	24.0
경기	641	839	251	123	116	22	128	29.9	14.6	13.9	2.6	15.3
강원	42	44	17	12	11	7	5	38.1	26.8	26.0	15.7	11.2
충북	74	51	13	8	8	2	5	25.3	16.5	16.1	4.2	8.8
충남	96	83	21	13	13	3	8	24.9	15.3	15.2	3.2	9.7
전북	45	40	14	8	8	1	6	34.8	20.5	19.8	3.7	14.4
전남	41	42	25	7	7	1	18	59.8	17.3	16.8	1.3	42.5
경북	98	119	46	10	10	2	35	38.6	8.8	8.5	1.6	29.7
경남	131	150	54	15	14	1	39	36.1	9.9	9.5	0.9	26.2
제주	22	17	4	3	3	0	1	24.4	16.7	16.6	1.5	7.7
전지역	3,454	4,859	1,869	988	886	252	881	38.5	20.3	18.2	5.2	18.1

6. 기업의 비정규직 사용 비율

전체 3,454개 기업 중 비정규직을 한 명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기업이 204개(5.9%)고, 10% 미만 사용하는 기업이 932개(27.0%)다. 100% 비정규직만 사용하는 기업은 34개(1.0%)고, 90% 이상 사용하는 기업이 376개(10.9%)다. 비정규직 비율이 50% 이상인 기업은 935개(27.1%)다.

한데 비정규직을 한 명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204개 기업 10만7천 명 가운데 64개 기업 4만5천 명은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이다. 이들은 대부분 인력파견용역업체이므로 실제로 비정규직을 한 명도 사용하지 않는 기업은 그만큼 줄어든다.

[표 8] 기업의 비정규직 사용비율별 비정규직 규모 (2019년 3월 현재)

비정규직 비율	기업수 (개)	노동자 (천 명)	비정규직 수(천 명)					비정규직 비율(%)				
			전체	직접고용			간접 고용	전체	직접고용			간접 고용
				소계	기간제	단시간			소계	기간제	단시간	
0%	204	107	0	0	0	0	0					
10% 미만	932	785	35	24	21	5	11	4.4	3.1	2.7	0.6	1.3
10-20%미만	553	842	126	53	48	10	72	14.9	6.3	5.7	1.2	8.6
20-30%미만	350	720	177	57	54	10	120	24.6	7.9	7.5	1.4	16.7
30-40%미만	293	468	160	78	70	20	82	34.2	16.6	15.0	4.3	17.6
40-50%미만	186	302	137	53	51	13	84	45.4	17.7	17.0	4.3	27.8
50-60%미만	199	372	204	107	87	45	97	54.9	28.8	23.3	12.1	26.1
60-70%미만	132	262	169	71	62	26	98	64.5	27.2	23.5	9.9	37.3
70-80%미만	104	269	200	105	81	47	95	74.4	39.0	30.1	17.6	35.4
80-90%미만	124	361	301	107	93	29	194	83.5	29.8	25.6	7.9	53.8
90-100%미만	342	346	334	308	305	37	26	96.5	89.0	88.0	10.7	7.5
100%	34	24	24	23	15	10	1	100	94.7	62.8	41.0	5.3
전체	3,454	4,859	1,869	988	886	252	881	38.5	20.3	18.2	5.2	18.1

7. 재벌기업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59개 대기업 집단 소속 계열사는 총 2,103개다. 노동부가 2019년 3월 기준으로 발표한 ‘고용형태 공시제 현황’에는 59개 대기업 집단 소속 기업이 523개 포함되어 있다. 이들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 209만 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84만 명(40.1%)이다. 기간제 등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21만 명(10.1%)이고,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63만 명(29.9%)이다. 재벌기업이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온상이자 주범인 것이다.

[표 9] 대기업집단 비정규직 규모(2019년 3월 현재)

대기업집단	계열 기업수 (개)	조사 기업수 (개)	노동자 수 (천 명)	비정규직 수(천 명)					비정규직 비율(%)				
				전체	직접고용			간접 고용	전체	직접고용			간접 고용
					소계	기간제	단시간			소계	기간제	단시간	
대기업집단	2,103	523	2,087	837	212	152	90	625	40.1	10.1	7.3	4.3	29.9
1~10대재벌	645	249	1,361	518	112	88	42	406	38.0	8.2	6.4	3.1	29.8
11~20대재벌	357	80	331	136	56	22	37	80	41.1	16.9	6.7	11.2	24.3
21~30대재벌	290	73	160	75	12	11	3	63	46.9	7.6	6.7	1.6	39.3
31~40대재벌	314	40	98	58	12	12	0	46	59.5	12.7	12.7	0.3	46.7
41~50대재벌	260	52	96	38	16	15	8	22	39.6	16.3	15.8	8.0	23.3
51~59대재벌	237	28	41	11	3	3	0	8	27.6	8.5	8.5	0.6	19.0

10대 재벌 노동자 136만 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52만 명(38.0%)이다. 이 가운데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11만 명(8.2%)이고,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41만 명(29.8%)이다. 하위 재벌에서 비정규직 비율과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은 더 높아진다. 비정규직 비율은 11~20대 재벌 41.1%, 21~30대 재벌 46.9%, 31~40대 재벌 59.5%고,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은 11~20대 재벌 24.3%, 21~30대 재벌 39.3%, 31~40대 재벌 46.7%다.

10대 재벌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삼성(14만 7천 명), 현대자동차(8만 1천 명), 롯데(7만 4천 명), SK(5만 명), 포스코(3만 4천 명), GS(3만 1천 명), 현대중공업(3만 명), LG(2만 8천 명), 한화(2만 2천 명), 농협(2만 명) 순이다.

10대 재벌 비정규직 비율은 GS(60.9%)가 가장 높고, 롯데(55.9%), 포스코(53.1%), 현대중공업(51.4%), 농협(43.2%), 한화(37.3%), SK(36.5%), 현대자동차(34.7%), LG(16.7%) 순이다.

[표 10] 대기업 집단별 비정규직 규모(2019년 3월 현재)

대기업집단	계열기 업수 (개)	조사기 업수 (개)	노동자 수 (천 명)	비정규직 수(천 명)					비정규직 비율(%)				
				전체	직접고용			간접 고용	전체	직접고용			간접 고용
					소계	기간제	단시간			소계	기간제	단시간	
삼성	62	41	403	147	16	15	4	130	36.5	4.1	3.7	1.0	32.4
현대자동차	53	24	234	81	10	10	0	71	34.7	4.4	4.4	0.1	30.3
에스케이	111	48	144	50	9	8	1	41	35.0	6.2	5.9	0.4	28.8
엘지	75	31	169	28	6	5	1	23	16.7	3.3	2.9	0.5	13.4
롯데	95	28	132	74	37	20	28	37	55.9	27.6	15.3	21.4	28.3
포스코	35	12	63	34	3	3	0	30	53.1	5.2	5.1	0.1	48.0
한화	75	23	59	22	6	6	1	16	37.3	10.3	10.0	1.6	27.0
지에스	64	16	50	31	13	8	6	17	60.9	26.6	16.2	11.1	34.4
농협	44	16	47	20	10	10	1	10	43.2	21.4	21.4	2.8	21.8
현대중공업	31	10	59	30	1	1	0	29	51.4	2.5	2.5	0.0	48.9
신세계	40	12	79	38	19	4	17	19	48.3	24.5	4.5	20.8	23.8
케이티	43	18	62	9	5	4	1	4	14.7	8.3	6.7	1.9	6.4
한진	32	9	48	22	3	3	0	18	45.1	6.9	6.7	0.2	38.2
씨제이	75	14	58	24	20	4	19	3	40.8	35.5	6.6	33.2	5.3
두산	23	8	29	14	2	2	0	12	46.6	5.4	5.4	0.1	41.2
부영	24	3	7	5	0	0		5	76.5	6.6	6.6	-	69.9
엘에스	53	7	11	2	0	0		2	20.3	4.0	4.0	-	16.4
대림	26	4	25	19	4	4	0	15	76.9	15.3	15.3	0.1	61.6
미래에셋	38	4	7	1	1	1	0	0	20.8	15.5	15.5	3.0	5.4
에쓰-오일	3	1	4	1	0	0		1	28.0	1.1	1.1	-	26.9
현대백화점	28	10	29	15	3	2	2	12	50.8	11.0	6.1	5.9	39.8
효성	57	11	15	5	1	1	0	4	31.4	5.7	5.7	0.0	25.7
한국투자금융	30	3	4	2	1	1	0	1	35.8	21.1	20.8	1.4	14.6
대우조선해양	5	3	34	24	0	0	-	23	68.8	0.5	0.5	-	68.2
영풍	24	5	7	4	0	0	-	3	50.6	1.7	1.7	-	48.9
하림	53	7	7	2	0	0	0	2	29.3	5.3	5.3	0.0	24.0
교보생명보험	14	7	12	6	2	2	1	4	45.3	16.7	16.7	6.1	28.6
금호아시아나	27	14	25	7	2	2	0	5	29.6	9.6	9.6	0.2	20.0
케이티앤지	11	3	8	2	0	0	-	2	24.9	3.5	3.5	-	21.3
코오롱	41	10	18	10	2	2	0	8	55.3	10.1	10.1	0.0	45.2
오씨아이	19	4	8	4	0	0	0	4	50.0	4.0	4.0	0.0	46.1
카카오	71	4	4	1	0	0	0	0	12.6	6.2	6.2	0.0	6.3
에이치디씨	24	5	13	12	7	7	0	5	87.4	51.2	51.2	0.8	36.2
케이씨씨	15	3	13	6	1	1	-	6	49.9	4.3	4.3	-	45.6
SM	65	6	4	2	1	1	-	1	45.7	12.8	12.8	-	32.8
대우건설	14	2	22	18	2	2	0	16	82.2	10.9	10.9	0.0	71.3
중흥건설	34	3	8	8	0	0	0	7	92.3	4.3	4.3	0.2	88.0
한국타이어	25	3	10	2	0	0	-	2	18.2	1.5	1.5	-	16.7

대기업집단	계열기 업수 (개)	조사기 업수 (개)	노동자 수 (천 명)	비정규직 수(천 명)					비정규직 비율(%)				
				전체	직접고용			간접 고용	전체	직접고용			간접 고용
					소계	기간제	단시간			소계	기간제	단시간	
세아	24	5	7	3	0	0	0	3	44.8	0.9	0.9	0.4	43.9
태광	23	5	8	3	1	1	0	2	36.0	11.5	11.1	1.7	24.4
이랜드	29	5	19	12	9	9	7	3	62.8	48.8	48.3	36.2	14.0
셀트리온	10	2	3	0	0	0	-	0	17.2	7.4	7.4	-	9.8
DB	20	9	12	2	1	1	0	1	12.8	6.3	5.5	1.4	6.5
호반건설	33	3	2	1	1	1	0	0	54.0	47.8	45.8	2.1	6.2
네이버	42	10	9	1	1	1	0	0	9.7	7.4	7.2	0.3	2.3
태영	53	6	9	5	1	1		4	51.8	11.4	11.4		40.4
넥슨	21	4	4	0	0	0		0	2.5	1.6	1.6		0.9
동원	24	7	14	6	1	1	0	4	41.6	10.3	8.8	1.7	31.3
한라	15	4	10	4	1	1	0	3	41.3	7.9	7.9	3.5	33.4
아모레퍼시픽	13	2	13	7	0	0	0	7	53.7	2.8	2.7	0.2	50.9
삼천리	20	2	2	0	0	0	0	0	18.3	14.1	14.1	10.4	4.3
한국지엠	3	2	11	1	0	0		1	13.1	0.1	0.1		13.0
동국제강	12	1	4	2	0	0	0	1	37.4	0.8	0.8	0.0	36.6
유진	54	7	4	1	1	1		0	24.8	15.7	15.7		9.0
금호석유화학	11	1	2	1	0	0		1	48.7	13.1	13.1		35.6
하이트진로	17	1	5	2	0	0		2	43.1	1.0	1.0		42.1
넷마블	23	6	3	0	0	0	0	0	6.6	3.3	3.2	0.2	3.3
애경	40	5	7	2	1	1	0	1	33.8	17.6	17.6	0.2	16.3
다우키움	57	4	3	1	1	1	0	0	41.2	37.2	37.0	3.1	4.0
합계	2,103	523	2,087	837	212	152	90	625	40.1	10.1	7.3	4.3	29.9

10대 재벌 소속 계열사는 2018년 3월 677개에서 2019년 3월 645개로 32개 감소했다. SK가 103개에서 111개로 8개, LG가 71개에서 75개로 4개 증가한데 비해, 농협이 79개에서 44개로 35개 감소했다.

10대 재벌 고용형태 공시제 대상 기업은 235개에서 249개로 14개 증가했다. SK가 7개, 삼성이 3개, GS가 3개, LG가 2개 증가했다. 10대 재벌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130만 명에서 136만 명으로 6만 명 증가했다. 삼성이 36만 3천 명에서 40만 3천 명으로 4만 명, GS가 4만 4천 명에서 5만 명으로 6천 명 증가했다.

지난 1년 사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증가한 그룹은 삼성, 현대자동차, SK, GS 4개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감소한 그룹은 포스코 1개다. 정규직이 증가하고 비정규직이 감소한 그룹은 LG와 롯데 2개고, 정규직이 감소하고 비정규직이 증가한 그룹은 농협과 현대중공업 2개다.

[표 11] 10대 재벌 정규직과 비정규직 증감(2017-18년, 단위: 천 명)

	정규직 감소	정규직 불변	정규직 증가
비정규직 증가	농협(-1,2), 현대중공업(-1,1)		삼성(15,25), 현대자동차(1,3), SK(10,8), GS(1,5)
비정규직 불변			
비정규직 감소	포스코(-1,-4)	한화(0,-1)	LG(4,-1), 롯데(1,-3)

지난 1년 사이 비정규직 비율은 농협이 39.8%에서 43.2%로 3.4%p 증가했고, 다음으로는 삼성이 33.7%에서 36.5%로 2.8%p 증가했다. 포스코는 56.0%에서 53.1%로 2.9%p 감소했다.

[표 12] 10대 재벌 비정규직 규모 추이(2018-2019년)

연도	대기업집단	계열 기업수 (개)	조사 기업수 (개)	노동자 수 (천 명)	정규직 수 (천 명)	비정규직 수(천 명)			비정규직 비율(%)		
						전체	직접 고용	간접 고용	전체	직접 고용	간접 고용
2018년	10대 재벌	677	235	1,296	814	483	103	380	37.2	7.9	29.3
	삼성	63	38	363	241	122	15	107	33.7	4.2	29.5
	현대자동차	56	25	230	152	78	10	68	33.8	4.5	29.3
	에스케이	103	41	126	84	42	4	38	33.4	3.2	30.1
	엘지	71	29	166	137	29	6	23	17.7	3.8	13.9
	롯데	95	29	134	57	77	38	39	57.2	28.4	28.8
	포스코	40	12	67	30	38	3	34	56.0	4.6	51.4
	한화	73	24	60	37	23	6	17	37.8	10.1	27.7
	지에스	69	13	44	18	26	10	16	59.9	22.4	37.5
	농협	79	15	46	28	18	8	10	39.8	17.8	22.1
현대중공업	28	9	59	30	29	1	28	49.5	2.3	47.2	
2019년	10대 재벌	645	249	1,361	843	518	112	406	38.0	8.2	29.8
	삼성	62	41	403	256	147	16	130	36.5	4.1	32.4
	현대자동차	53	24	234	153	81	10	71	34.7	4.4	30.3
	에스케이	111	48	144	94	50	9	41	35.0	6.2	28.8
	엘지	75	31	169	141	28	6	23	16.7	3.3	13.4
	롯데	95	28	132	58	74	37	37	55.9	27.6	28.3

연도	대기업집단	계열 기업수 (개)	조사 기업수 (개)	노동자 수 (천 명)	정규직 수 (천 명)	비정규직 수(천 명)			비정규직 비율(%)		
						전체	직접 고용	간접 고용	전체	직접 고용	간접 고용
	포스코	35	12	63	29	34	3	30	53.1	5.2	48.0
	한화	75	23	59	37	22	6	16	37.3	10.3	27.0
	지에스	64	16	50	19	31	13	17	60.9	26.6	34.4
	농협	44	16	47	27	20	10	10	43.2	21.4	21.8
	현대중공업	31	10	59	29	30	1	29	51.4	2.5	48.9
	10대재벌	-32	14	65	29	35	9	26	0.8	0.3	0.5
증감	삼성	-1	3	40	15	25	1	23	2.8	-0.1	2.9
	현대자동차	-3	-1	4	1	3	0	3	0.9	-0.1	1.0
	에스케이	8	7	18	10	8	5	3	1.6	3.0	-1.3
	엘지	4	2	3	4	-1	0	0	-1.0	-0.5	-0.5
	롯데	0	-1	-2	1	-3	-1	-2	-1.3	-0.8	-0.5
	포스코	-5	0	-4	-1	-4	0	-4	-2.9	0.6	-3.4
	한화	2	-1	-1	0	-1	0	-1	-0.5	0.2	-0.7
	지에스	-5	3	6	1	5	3	1	1.0	4.2	-3.1
	농협	-35	1	1	-1	2	2	0	3.4	3.6	-0.3
	현대중공업	3	1	0	-1	1	0	1	1.9	0.2	1.7

8. 1만 명 이상 거대기업

고용형태 공시제 기업 중 노동자 수가 1만 명 이상인 거대기업은 61개사다. 이들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140만 명이고 비정규직은 58만 명(41.5%)이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43만 명(30.8%)으로 직접고용 비정규직 15만 명(10.7%)보다 훨씬 많다.

SK건설(83.7%), 삼성물산(83.3%), 대우건설(82.1%), 롯데건설(81.1%), 현대건설(80.9%), 포스코건설(80.1%) 등 건설 6개사와 한국맥도날드(90.3%), 스타벅스커피코리아(82.3%) 등 외식 2개사, 한진(87.3%) 등 운수창고업 1개사는 비정규직 비율이 80%가 넘는다. 이에 비해 기아자동차(1.2%), KT(2.2%) 2개사는 10%가 안 된다. 업종과 기업에 따라 비정규직 비율 차이가 크다.

[표 13] 1만인 이상 거대기업 비정규직 규모(2019년 3월 현재)

회사이름	산업	노동자 수 (천 명)	비정규직 수(천 명)					비정규직 비율(%)				
			전체	직접고용			간접 고용	전체	직접고용			간접 고용
				소계	기간제	단시간			소계	기간 제	단시 간	
(주)LG화학	20	22,925	3,513	243	234	9	3,270	15.3	1.1	1.0	0.0	14.3
(주)아모레퍼시픽	20	12,909	7,133	333	312	28	6,800	55.3	26	24	0.2	52.7
(주)포스코	24	32,930	15,936	254	247	10	15,682	48.4	0.8	0.8	0.0	47.6
현대제철주식회사	24	25,056	13,696	308	308		13,388	54.7	1.2	1.2		53.4
삼성디스플레이(주)	26	28,834	4,100	90	90		4,010	14.2	0.3	0.3		13.9
삼성에스디아이(주)기흥	26	11,944	2,123	748	747	1	1,375	17.8	6.3	6.3	0.0	11.5
삼성전기(주)	26	14,313	1,968	440	408	33	1,528	13.7	3.1	2.9	0.2	10.7
삼성전자(주)	26	131,120	27,792	1,027	603	426	26,765	21.2	0.8	0.5	0.3	20.4
에스케이하이닉스	26	33,242	10,579	105	105	2	10,474	27.7	0.3	0.3	0.0	27.4
엘지디스플레이(주)	26	33,832	3,553	62	42	20	3,491	10.5	0.2	0.1	0.1	10.3
엘지전자(주)	26	42,076	5,119	711	518	193	4,408	12.2	1.7	1.2	0.5	10.5
두산중공업(주)	29	11,552	5,468	758	758		4,710	47.3	6.6	6.6		40.8
기아자동차(주)	30	35,732	435	343	343	43	92	1.2	1.0	1.0	0.1	0.3
한국지엠(주)부평공장	30	10,396	1,115				1,115	10.7				10.7
현대모비스(주)	30	16,803	7,086	353	350	3	6,733	42.2	2.1	2.1	0.0	40.1
현대자동차(주)	30	78,917	13,033	3,065	3,065	4	9,968	16.5	3.9	3.9	0.0	12.6
대우조선해양(주)	31	29,476	19,832	161	161		19,671	67.3	0.5	0.5		66.7
삼성중공업	31	26,711	16,733	219	201	18	16,514	62.6	0.8	0.8	0.1	61.8
현대삼호중공업(주)	31	11,830	8,310	124	124		8,186	70.2	1.0	1.0		69.2
현대중공업(주)	31	27,952	14,090	488	488		13,602	50.4	1.7	1.7		48.7
(주)대우건설본사	41	21,324	17,513	1,951	1,951	10	15,562	82.1	9.1	9.1	0.0	73.0
(주)포스코건설/본사	41	18,331	14,676	1,805	1,805		12,871	80.1	9.8	9.8		70.2
GS건설(주)	41	19,619	14,658	3,572	3,572		11,086	74.7	18.2	18.2		56.5
SK건설(주)	41	24,281	20,312	826	826		19,486	83.7	3.4	3.4		80.3
대림산업(주)	41	17,544	13,153	2,888	2,888		10,265	75.0	16.5	16.5		58.5
롯데건설(주)	41	12,377	10,034	1,856	1,856		8,178	81.1	15.0	15.0		66.1
삼성물산(주)	41	52,554	43,765	3,746	3,706	502	40,019	83.3	7.1	7.1	1.0	76.1
삼성엔지니어링	41	10,696	6,376	972	967	17	5,404	59.6	9.1	9.0	0.2	50.5
현대건설(주)	41	21,998	17,790	2,017	2,008	10	15,773	80.9	9.2	9.1	0.0	71.7
(주)이마트	47	37,794	12,139	3,078	2,684	999	9,061	32.1	8.1	7.1	2.6	24.0
(주)지에스리테일	47	11,125	5,895	4,793	332	4,672	1,102	53.0	43.1	3.0	42.0	9.9
롯데쇼핑(주)	47	40,594	29,022	17,489	2,422	16,981	11,533	71.5	43.1	6.0	41.8	28.4

회사이름	산 업	노동자 수 (천 명)	비정규직 수(천 명)					비정규직 비율(%)				
			전체	직접고용			간접 고용	전체	직접고용			간접 고용
				소계	기간제	단시간			소계	기간 제	단시 간	
주식회사아성다이소	47	13,037	7,901	7,731	7,731	2,523	170	60.6	59.3	59.3	19.4	1.3
쿠팡주식회사	47	10,634	6,769	3,310	3,310		3,459	63.7	31.1	31.1		32.5
홈플러스(주)	47	21,692	6,654	3,819	811	3,518	2,835	30.7	17.6	3.7	16.2	13.1
(주)한진	49	10,875	9,497	82	82		9,415	87.3	0.8	0.8		86.6
서울교통공사	49	20,849	4,004	145	145		3,859	19.2	0.7	0.7		18.5
(주)대한항공	51	25,940	7,027	1,573	1,564	10	5,454	27.1	6.1	6.0	0.0	21.0
아시아나항공(주)	51	10,593	1,931	377	366	11	1,554	18.2	3.6	3.5	0.1	14.7
(주)스타벅스코리아	56	15,693	12,913	12,800		12,800	113	82.3	81.6		81.6	0.7
(주)아워홈	56	12,597	6,583	4,514	3,288	2,980	2,069	52.3	35.8	26.1	23.7	16.4
삼성웰스토리(주)	56	14,997	9,558	2,212	1,602	1,095	7,346	63.7	14.7	10.7	7.3	49.0
한국맥도날드(유)	56	13,221	11,932	11,931	9,267	11,925	1	90.3	90.2	70.1	90.2	0.0
(주)KT	61	23,636	522	522	522			2.2	2.2	2.2		
(주)엘지유플러스	61	11,245	1,999	1,254	1,254		745	17.8	11.2	11.2		6.6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	61	10,559	6,250	6,236	30	6,225	14	59.2	59.1	0.3	59.0	0.1
삼성에스디에스	62	17,057	4,135	172	81	91	3,963	24.2	1.0	0.5	0.5	23.2
(주)유베이스	63	10,323	1,801	1,801	831	1,208		17.4	17.4	8.0	11.7	
(주)국민은행	64	22,525	6,051	1,044	1,044	653	5,007	26.9	4.6	4.6	2.9	22.2
(주)신한은행	64	17,465	4,682	1,075	871	617	3,607	26.8	6.2	5.0	3.5	20.7
(주)우리은행	64	19,247	5,264	1,382	1,102	830	3,882	27.3	7.2	5.7	4.3	20.2
농협은행주식회사	64	19,663	6,437	2,771	2,771	1,178	3,666	32.7	14.1	14.1	6.0	18.6
주식회사하나은행	64	16,820	4,151	638	638	196	3,513	24.7	3.8	3.8	1.2	20.9
현대엔지니어링(주)	72	23,762	19,627	1,593	1,577	21	18,034	82.6	6.7	6.6	0.1	75.9
(주)삼구아이앤씨	75	14,165	10,139	10,139	10,139			71.6	71.6	71.6		
(주)에스원	75	18,332	12,048	573	573	4	11,475	65.7	3.1	3.1	0.0	62.6
(주)유니에스임대사업	75	10,648	6,354	6,354	6,354			59.7	59.7	59.7		
케이텍맨파워(주)	75	10,866	2,680	2,680	2,680	129		24.7	24.7	24.7	1.2	
학교법인가톨릭학원	84	20,004	6,633	3,673	3,673	662	2,960	33.2	18.4	18.4	3.3	14.8
(학)연세대학교수업사업	85	20,299	7,060	3,800	3,766	2,093	3,260	34.8	18.7	18.6	10.3	16.1
아산사회복지재단	86	13,519	4,084	1,420	1,416	133	2,664	30.2	10.5	10.5	1.0	19.7
61개사		1,402,050	581,633	150,446	101,609	72,883	431,187	41.5	10.7	7.2	5.2	30.8

9. 함의

지금까지 분석결과를 요약하면서 함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형태 공시제 시행 첫 해인 2014년에 162만 명(37.3%)이던 비정규직이 2017년에는 192만 명(40.3%)으로 30만 명(3.0%p) 증가했다. 하지만 2018년에는 194만 명(49.8%)으로 수는 증가하고 비율은 감소했고, 2019년에는 187만 명(38.5%)으로 수와 비율 모두 감소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감소세는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둘째, 10대 재벌 비정규직은 2018년 48만 명(37.2%)에서 2019년 52만 명(38.0%)으로 1년 사이 4만 명(0.8%p) 증가했다.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10만 명(7.9%)에서 11만 명(8.2%)으로 1만 명(0.3%p) 증가했고,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38만 명(29.3%)에서 41만 명(29.8%)으로 3만 명(0.5%p) 증가했다. GS(60.9%), 롯데(55.9%), 포스코(53.1%), 현대중공업(51.4%)은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고, LG(16.7%)는 10대 재벌 중 비정규직을 가장 적게 사용하고 있다.

셋째,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은 187만 명(38.5%)이고,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99만 명(20.3%),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88만 명(18.1%)이다. 10대 재벌 비정규직은 직접고용이 52만 명(8.2%), 간접고용이 41만 명(29.8%)이다. 재벌계열 거대기업일수록 사내하청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들 대기업 사내하청은 대부분 상시·지속적 일자리아자 불법파견이다. 정부는 불법파견 단속을 강화해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넷째, 고용형태 공시제 대상 기업을 산업대분류 기준으로 나눠 살펴보면, 제조업이 920개(26.6%)로 가장 많고, 사업시설관리서비스업이 663개(19.2%)로 두 번째로 많다. 노동자수를 보더라도 제조업이 152만 명(31.4%)으로 가장 많고, 사업시설관리서비스업이 69만 명(14.1%)으로 두 번째로 많다. 이것은 지난 20년 동안 무분별한 아웃소싱으로 인력파견 용역사업이 번창했음을 말해준다.

다섯째,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 300인 이상 500인 미만 기업은 비정규직 비율이 26.1%인데, 1천인 이상 기업은 40%가 넘는다. 5천인 이상 1만인 미만 기업이 45.3%로 가장 높고, 1만인 이상 기업은 41.5%다. 거대기업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온상이자 주범이다.

여섯째,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2018년 8월 현재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254만 명(전체 노동자의 12.6%)이고 비정규직 수(비율)는 35만 명(14.0%)이다. 이에 따라 ‘노동자 대다수(사업체수 99%, 노동자수 88%)가 중소기업체에서 일하고 있다’는 9988 신조어(新造語)가 생겨났고, ‘기업 경영상태가 워낙 열악한 중소기업체에 비정규직이 몰려 있다 보니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는 핑계거리가 되어 왔다.

하지만 노동부가 집계한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를 보면 사정이 달라진다. 300인 이상 대기업 3,454개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486만 명으로 통계청 조사(254만 명)보다 두 배 많고, 비정규직 비율은 38.5%로 통계청 조사(14.0%)보다 3배 높다. 실제로 통계청 ‘일자리행정통계’에서

2017년 정부와 민간 대기업 노동자는 745만 명(전체 노동자의 39.1%)이다. 따라서 정부와 대기업의 노동정책 방향은 노동시장에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정부와 대기업이 올바른 노동정책을 선택하면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